

제8대 익산공노조 김병진 위원장 당선

제8대 전북 익산시공무원노동조합 보궐선거 위원장에 김병진 주무관(상수도과)이 당선됐다.
익산시공무원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는 제8대 익산시공무원노동조합 보궐선거 결과, 전체 조합원 1,384명 중 1,033명(투표율 74.64%) 투표에 참여해 702표(득표율 67.96%) 얻은 기호 1번 김병진 주무관이 당선됐다고 밝혔다.
당선인은 제6대 사무국장 제7대 부위원장으로 익산시 공무원 노동조합 집행부에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노조를 노조답게 담당하게 진심으로'라는 기치로 지금까지 2027년 말까지 익산시공무원노동조합을 이끌어간다.
김병진 익산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당선인은 "조합원과 함께 소통하고 행동하며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며 "조합원이 중심이 되는 노조, 조합원과 신뢰가 쌓이는 노동조합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익산=이재준 기자



전북대 치과대학장 등, 대학발전기금 기부

평생을 모교에서 수학과 교육과 연구에 매진해 온 전북대학교 양연미 치과대학장과 졸업생인 샘물소아치과의원 김추성 원장이 제자들과 후배들을 위한 사랑을 실천하고자 발전기금 2,000만원을 기부했다.
전북대는 최근 대학본부 총장실에서 양오복 총장과 양연미 치과대학장, 김추성 원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발전기금 기증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두 기부자는 치과대학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과 인재 양성에 써달라며 소중한 기금을 전달했다.
이번 기부는 양 학장이 모교인 전북대에서 학사부터 박사 학위까지 취득하고 20여 년간 교수로 재직하며 받은 성원에 보답하고, 김추성 원장 역시 모교에서 전문의 과정을 마치고 겸임교수로 활동하며 느낀 후배 사랑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양 학장은 1991년 치과대학 입학 이후 전북대병원 치과진료처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대한소아치과학회 및 대한장애훅치학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함께 기부에 참여한 김추성 원장은 전북대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소아치과 박사 과정을 수료한 전문의로, 샘물소아치과위원을 운영하고 있다.
기부된 2,000만원의 기금은 기부자들의 뜻에 따라 전북대 치과대학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및 교육 지원 등 의미 있는 곳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한국시니어실버배구연맹, 진안에 고향사랑기부

진안군은 (사)한국시니어실버배구연맹(고문 송재현)에서 고향사랑기부금 1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군청 부근수실에서 진행된 이번 기탁식은 지역 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단체에서 뜻을 모아 추진됐다.
진안군은 기탁된 기부금을 지역 내 다양한 복지사업과 지역 활성화 사업에 소중히 사용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김제 교월동 '동민의 날' 성황리 열려

김제시 교월동 행정복지센터는 지역발전협의회(회장 홍종식)가 지난 11일 김제삼기체육관에서 지역주민과 출향인 등 약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회 교월동민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식전행사 및 개막식에 이어 초대기수 공연, 한마음 체육대회, 주민 노래자랑, 행운권 추첨 등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또 지역발전협의회는 이날 지역 인재양성의 요람인 월촌 초등학교에 2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해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알림

▲김강주 제10대 국립군산대학교 총장 취임식은 일시: 15일(수) 오후 2시, 장소: 국립군산대 아카데미홀

“지속 가능 재단 운영기반 구축”

정대경 부안군문화재단 초대 대표이사

부안군문화재단(이하 재단)은 지난 10일 부근수실에서 임명식을 갖고, 13일자로 정대경 초대 대표이사가 공식 취임했다. 재단은 이번 취임을 계기로 전문 경영 체계를 도입해 조직 운영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본격적으로 높여 나갈 방침이다.
정대경 대표이사는 취임 소감을 통해 “재단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조직의 내실을 다지는 한편 행정 체계를 조기에 정비하고 데이터 기반의 경영을 추진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공모사업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정책 제안을 강화하고 메세나 사업을 중심으로 재원 확보를 확대해 지속 가능한 재단 운영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이사는 핵심 경영 슬로건으로 ‘안정 위의 성장 구조 위의 확장’을 제시하고, 행정 시스템 정착과 조직 안정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신임 정 대표이사는 △전 삼일초고교장 대표 △전 한국소극장협회 이사장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전 한국연구협회 이사장 등 문화예술계 주요 요직을 두루 역임한 공연예술 분야의 베테랑 전문가로, 30여



년간 현장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이 재단 운영에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재단 관계자는 “2021년 설립 이후 다져온 지역 문화 예술의 토대 위에 이번 초대 대표이사 취임을 계기로 주요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모 사업 확대와 메세나 협약 체결 등 구체적인 실행 과제들을 통해 재단의 운영 역량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은, 완주군가족센터에 ‘JB희망의 공부방’ 개소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이 완주군 아동들을 위한 학습 환경 개선에 나섰다.
전북은행은 지난 9일 완주군가족센터 다가은 구이점에서 JB희망의 공부방 제232호 오픈식을 열고, 지역 아동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밝혔다.
다가은 구이점은 지역 아동들에게 학습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문을 연 공간으로, 학습 지원과 문화 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 기초학력 향상과 정서 발달에 도움을 주고 있다. 다만 교육 공간이 협소하고 학습 환경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이번 지원 대상에 선정됐다.
전북은행은 교실 구조를 새롭게 정비하고 책상과 의자, 책장 강이용 테이블 등 맞춤형 학습 가구를 지원했다. 이와 함께 수납공간을 대폭 개선하고 벽걸이 TV, 벽 수선, 소파 등을 설치해 아동들이 더욱 편안하고 안정적인 공간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했다.
이날 오픈식에는 완주군 사회복지과와 완주군가족센터 관계자, 전북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새롭게 단장한 공부방 개소를 함께 축하했다.
신항 센터장은 “전북은행의 지원으로 깨끗하고 안정적인 학습 환경이 마련돼 아동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



대된다”며 “장기적으로는 학업 성취도 향상과 정서적 안정, 자존감 증진 등 성장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성두 완주군청지점장은 “이번 공부방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책임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는 데 든든한 기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곳곳에 희망을 전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가장 따뜻한 금융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 앞장... 축산농가 안정 기반 강화 기여

김형기 익산군산축협 과장, '새로운 농협인상'

농협 전북본부는 지난 10일 본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4월 정례조회에서 익산군산축협 김형기 과장을 전북농협 새로운 농협인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북농협 새로운 농협인상은 농업·농촌 발전과 조합원 삶의 증대에 기여한 농협인을 발굴해 그 공로를 격려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해 핵심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김형기 과장은 공동방제단 운영 실무를 맡아 가축질병 예방과 축산농가 방역 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2026년 방제협 가축질병 방제단 운영을 적극 이끌어 설 명절 전후 특별방역기간 동안 취약농가와 소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집중 소독을 실시하는 등 현장 중심의 방역 활동에 앞장섰다.
이번 특별방역은 범농협의 가용 자산을 활용해 추진됐으며, 현장 밀착형 소독과 방역지도를 통해 ASF, 구제역 등 주요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에 힘을 보탤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상근 기자



김형기 과장은 “AI, ASF,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확산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철저한 차단 방역과 체계적인 방역지도 업무를 추진해 지역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축산인들의 소독 증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건협 전북지부, 무선인식 전자태그 스마트 검진 시스템 도입

실시간 동선 관리로 대기시간 감축

한국건강관리협회 전북특별자치도지부가 전자태그 기반의 스마트 검진 시스템을 도입하며 디지털 검진 환경 구축에 나섰다.
한국건강관리협회 전북특별자치도지부는 6일부터 RFID(무선인식 전자태그) 기반 스마트 검진 시스템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 도입은 검진 고객의 편의성을 높이고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새롭게 도입된 시스템은 수검자가 손목밴드 형태의 RFID 태그를 착용한 뒤 각 검사실 접수기에 터치하면 자동으로 대기 등록이 이뤄지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실시간 대기 현황이 즉시 반영되고, 최적의 검진 동선이 자동으로 관리돼 검사실 이동 과정에서의 혼선을 줄일 수 있다.
특히 시스템이 검진 동선을 효율적으로 안내하면서 대기 시간을 크게 줄여 수검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다 원활한 검진 진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모든 검사 데이터가 디지털 방식으로 실시간 전송되



면서 기존 종이 차트 사용을 없앴다. 이에 따라 차트 분실 위험을 줄이고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데이터 관리의 신뢰성도 한층 강화됐다는 설명이다.
임진영 본부장은 “RFID 시스템 도입은 고객 중심의 스마트 의료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라며 “앞으로도 첨단 IT 기술을 검진 시스템에 적극 접목해 도민들에게 더욱 쾌적하고 수준 높은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순창군, 풍산면에서 올해 첫 모내기 시작

순창군이 지난 10일 풍산면에서 올해 첫 모내기를 실시하며 본격적인 영농철의 시작을 알렸다. 이번에 심는 벼는 조생종(해담벼) 품종으로, 일관적인 모내기 시기보다 앞당겨 이앙함으로써 기후 변화에 대응, 조기 수확을 목표로 한다.
군은 이번 첫 모내기를 시작으로 6월 하순경까지 순차적으로 모내기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특히 군은 20여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지역농협과 협력하는 벼·콩 공동방제 지원 및 자가 방제 약제 지원 사업을 추진해 관내 농업인을 방제 작업에 우선 참여시켜 지역 경제 선순환을 도모하고 있다.
한편 군은 안정적인 쌀 생산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은양소독기 운영, 벼 육묘상 상자차리지 지원, 개씨무늬병 예방 미량요소 지원 사업 등 선제적인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순창=이양원기자



남원농기센터, 미생물 활용·농산물 안전분석 교육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연주)가 추진하는 ‘미생물 활용 및 농산물 안전 분석 교육’을 상반기 매월 첫째 주 수요일, 하반기 격월 1회씩 정기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며, 친환경 농업 확산에 앞장서 지역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농업용 유용 미생물은 화학비료와 합성물질 등 합성물질 사용을 최소화하고, 작물 생육 환경을 최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배양한 미생물을 말한다.
현재 센터는 미생물과 광물질, 물의 상호 공생관계를 활용해 유기물을 분해한 BM 활성수를 비롯해 광합성균, 유산균, 고초균, 효모균, 클로렐라, BT, 방선균 등 미생물 7종을 연간 70톤 이상 공급하고 있다.
미생물 공급은 지역별 접근성을 고려해 두 곳에서 운영, 중·광역지 중심인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월요일 오후 1시~4시 30분에, 고행지 중심인 농기계 임대사업소(인원면 소재)에서는 목요일 오후 오후 1시 30분~4시에 각각 무상 공급을 진행한다.
공급 대상은 관련 교육을 수료한 농업인으로, 월요일에 사전 신청 및 예약(063-620-8073)을 통해 격주로 수령할 수 있고, 미생물을 담아갈 용기는 개인이 직접 지참해야 하며 실제 사용 시에는 작물의 생육 시기에 맞춰 희석농도를 조절해 살포하거나 관주해야 한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시, 명예환경감시원 발대식 개최

김제시는 지난 1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환경오염 감시 및 신고, 환경보전 활동 강화를 위한 명예 환경감시원 교육 및 발대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대식은 신규 및 재위촉원 20여명의 명예 환경감시원이 참여했다.
이후 환경감시원의 임무 및 역할을 알기 위해 실시한 소양 교육은 1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명예 환경감시원들은 교육을 통해 민간 차원의 자율적 환경오염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김제=곽노태 기자

남원 사매면, 에너지바우처 카드 사용 안내 강화

남원시 사매면 행정복지센터(면장 김식복)는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에너지 바우처 카드’ 사용 안내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사용 독려 활동을 추진하며 주민 생활 안정 지원에 힘쓰고 있다.
사매면의 에너지바우처 수급현황은 약 100가구로, 가구원수에 따라 지원금액은 △1인 가구 29만5,200원 △2인 가구 40만7,500원 △3인 가구 53만2,700원 △4인 이상 가구 70만 1,300원으로 차등 지원된다.
사매면은 면장과 직원이 매일 한 가구씩 직접 찾아가 에너지바우처 사용 방법을 안내하며, 정보 접근이 어려운 어르신과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이 지원을 놓치지 않도록 돕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